



‘강한경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11. 5 ~ 11. 6 관악구청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잔치



▲ 관악구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에게 표창장 수여 장면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와 전통시장 연합회가 주최하고, 관악구가 후원하는 ‘2019 관악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지역내 우수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4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11. 5과 11. 6일 양일간 관악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MBC 박지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 행사는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아래 식전공연과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개회사, 내빈축사,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소상공인의 회원사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소상공인 업무발전에 공이 많은 김삼술씨의 3명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임순이씨 등 3명은 관악구청장 표창을 조래성씨의 2명은 관악구 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악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먹거리, 의류 및 잡화, 액세서리, 농산품 등 40여 관악구 소상공인 업체들이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신발브랜드의 상징도시로 알려진 성동구의 구두전문 브랜

드 부스가 설치되어 인접 지자체와 서로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 했다.

한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로 소속을 바꾸면서 소상공인특별법에 의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으며, 향후 관악구 조례등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전국소상공인 연합회와 연대하여 당면한 소상공인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주최한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64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에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앞장서서 협력과 상생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나아가서 소상공인의 공동 브랜드 구축과 판매 효과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규명 기자 >

송년 인사

자생력 갖춘 소상공인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힘을 결집하자!



회장 유 덕 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관악구 소상공인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9년을 보내면서 ‘관악구 소상공인’ 신문 2호 발간을 축하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수 소비시장이 침체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한해로 기억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소상공인 연합회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법정 경제단체로 새롭게 인정받고 스스로 권익증진과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한 해였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 여러분!

관악구소상공인협의회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자금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 자생력을 갖춘 소상공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힘을 결집해 나아갑시다.

아무쪼록 소상공인 소식지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 증진과 회원 상호 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참여와 존중의 공감대를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관악구 소상공인의 위상을 증진하는 커뮤니티로 계속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지난 1년동안 소상공인연합회 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아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과 협회 관계자, (사)아름다운 다락방 허성기 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관악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의 번영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9. 12. 26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꾸준히 추진 할 터



박준희
관악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관악구 소상공인」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다양한 경영 개선 교육사업과 상호교류 증진 활동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신문 발간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활동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업 변형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로서,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 대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만큼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확대 및 금리인하,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제도페이와 연계한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 상승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아무쪼록 「관악구 소상공인」 신문이 관악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께 전달되어 자긍심을 드높이고 화합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소상공인은 관악구경제의 핵심이자 버팀목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장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관악구의회 의장 왕정순입니다.
「관악구소상공인」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쓰신 유덕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지역경제의 주인공이자 중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계시기에 수많은 위기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부침 속에서도 관악의 경제가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설립된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지원 교육 실시와 소상공인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악구 경제의 핵심이자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사업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관악구소상공인」 발간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성공사례와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관악구소상공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화보



만평

그림 | 류대현

소상공인의 웃음! 관악구의 함박웃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예산 전년대비 76.7% 증가한 141억원 편성

관악구, 2020년도 예산 7,656억 원 편성 — 11.5%(791억 원) 늘어난 규모



관악구가 2020년도 예산으로 7,656억 4천만 원을 편성해 21일 관악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7,425억 원, 특별회계 231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1.5%(7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악구는 경제기반 구축, 소상공인 생활안정, 청년정책을 중점으로 '경제 일자리, 청년지원'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별 대표상권조성사업(320백만 원),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발행(220백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9,151백만 원) 등 전년대비 76.7% 증가한 총 1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 일자리 분야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을 돕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5,562백만 원),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382백만 원), ▲서울창업카페(낙성대점) 운영(279백만 원),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53백만 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안정적 취업기반조성과 공공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공공근로사업(3,713백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34백만 원) 등 총 5,891백만 원을 투입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성안정정책 수요조사 용역(73백만 원) ▲관악형마더센터 '아이랑' 운영(30백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어르신일자리) (10,505백만 원) 등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관악 만들기에 힘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올해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515백만 원) 등 교육 분야에 115억 원을,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8,316백만 원),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178백만 원), 고려 역사문화 체험 강화(97백만 원) 등 문화 관광 분야에 184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노후하수관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보수를 위해 도로, 하수분야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61억 원을 편성했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등 환경 분야에도 올해대비 39억을 증액한 335억 원을,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리가게 정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교통 분야에 총296억 원을 편성했다.

마련에도 힘쓴다.
 청년지원 분야는 올해 702백만 원에서 2020년 3,768백만 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했으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인 ▲관악 청년센터(2,991백만 원)를 마련하고 ▲관악청년 문화공간(241백만 원)을 운영하는 등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의 '청년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그간 구민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해 온 이동관악청, 경로당 순회의 취지도 담았다. 내년도에는 복지사업 분야에 총 4,147억 원, 전체 예산의 54.16%를 차지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SOC사업과 연계한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6,060백 만원)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649백만 원) ▲여

특히 내년도에 도립천을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립천 특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경관조명과 테마가 있는 교량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립천 브랜드화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투자와 정책을 추진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규명 기자>

‘관악의 경제가 꿈틀’

- 골목상권 활성화,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정책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 두드러져
-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활성화 발전 위한 연구용역'순풍,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계획



민선7기 관악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악구는 민선7기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자, 지난해 구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소상공인·골목상권·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했다.
 관악구는 종업원 수 10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 지역경제의 94.5%를 차지하고 있어 골목상권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관악구는 전담부서(지역상권활성화과)를 필두로 구청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 ▲골목상권활성화 ▲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 3대분야 30개 세부사업을 발굴해 모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낙후된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에 관악구가 서울시 1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원동상점가,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등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 내에 2024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관악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권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억원을 늘려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연 1.8%에서 1.5%로 대폭 낮추었으며, 2020년에는 융자지원 규모를 25억원으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악구는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100억원의 보증금액을 추가 확보했으며, 신설된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과 협업하여 2020년에는 질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지원과 함께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과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서울시 공모 사업인 "생활상권활성화 사업"에 난곡지역이 선정되어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육성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청년예술가를 통해 소상공인 점포에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소상공인 가게 55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

어 관내 의류제조업 도시형 소공인 20개 업체가 실내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역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관악구는 그동안 지역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로수길·건고실은문화의거리·남현동먹자골목·미성동도깨비시장 상권의 입간판 설치, 영림시장과 강남골목시장 보도 환경 개선, 보라매동·중앙동·낙성대동 상권밀집지역 보안등 개선등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했다.
 2020년에도 관악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별 상권 기반조성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이어 갈 예정이다.
 <이육규 기자>



찾아가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관악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악구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지난 9월에 '관악구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참여 업체 모집을 통해 동별 1~2개 30개 점포를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참여 업체 모집을 위한 사전 설명회도 6개동 주민센터(보라매동, 중앙동, 청룡동, 낙성대동, 조원동, 난향동)에서 개최 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내에 영업장 운영자로서 상시 근

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유흥업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 사전진단 1회 -교육컨설팅 4회 -블로그체험단 지원 등 전담 컨설턴트 책임관리제로 운영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으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선진지를 견학하고 컨설팅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관악구는 내년 초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동네 슈퍼 협업화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의류제조업체 작업장 환경개선 -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 상권 활성화과(02-879-57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규 기자>



관악신사시장 '아닌 밤중에 야시장' 개최

- 12월14일 관악신사시장서 쇼핑, 외식, 컬처, 힐링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야시장 열려
- 푸드매대, 공연, 키즈플레이 존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 '풍성' 관악 신사시장에 야시장이 열려.

관악구 신사시장에서는 지난 12월 14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닌 밤중에 야시장'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번 행사는 쇼핑, 외식, 컬처, 힐링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아닌 밤중에 야시장?!' 콘셉트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성되어 푸드매대와 푸드트럭이 참여해 음식을 판매하고, 플라마켓이 운영되며, 마술과 버스킹,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이 인기리에 펼쳐 졌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플레이 존도 설치되었으며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운영부스에서 1만원 상품권을 교환해주고, 푸드매대 또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고객은 맥주 1잔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한편, 관악신사시장은 올해 아케이드 보수 공사와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으며, 지역 활력 촉진행사와 설·추석 명절이벤트 행사 등 고객 유입을 위한 각종 경영현대화사업에도 힘써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아닌 밤중에 야시장'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온 야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신재천 기자>



전통시장 4개소 지역활력촉진행사 개최

- 서울시 신시장 모델인 '군것질데이', '곶간데이'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 인현시장, 봉천제일종합시장, 신사시장, 팽귄시장 동시 개최

관악구가 지난 28일 토요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2019 지역활력촉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9 지역활력촉진행사'는 서울시 신시장모델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현시장, 봉천제일종합시장, 신사시장, 팽귄시장 4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는 서울시 신시장 모델인 '군것질데이'와 '곶간데이'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와 더불어 시장별 주제를 갖고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인현시장은 '강감찬장군님과 인현시장 나들이' ▲봉천제일종합시장은 '봉리단길 축제' ▲신사시장은 '관악신사 장터 한마당' ▲팽귄시장은 '팽귄축제'로 인기가 좋았다.

시장마다 지역주민의 공연,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보물찾기, 장터놀이행사, 포토존 등 즐길 거리가 함께 제공되며, 풍성한 경품 행사도 있었는데 신사시장과 팽귄시장은 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봉천제일종합시장과 인현시장은 야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중적으로 손님이 즐겨 찾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손광현 기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범적인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사용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사업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업소운영 그리고 사회공헌적인 이미지를 확산하여 소상공인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tag는 가격을 표시한 꼬리표 해시태그, 태그 등 장소나 상황을 표기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으며, KFME의 대표 공동브랜드를 의미하는 K를 연계되며, 한류 문화와 직결되는 한국의 소상공인을 나타내는 공동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tag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역량 강화 및 가치를 극대화하여 매출 증진과 지속가능한 브랜드과위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인지도를 배가하여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제고하며 소상공인의 이미지 개선과 지속경영 가능한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ktag.or.kr/main.php

<고성민 기자>

나눔과 사랑의 장학금 전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는 지난 7월 30일 사랑나눔 사회공헌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성보중학교 김나현 학생(3년)외 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효행심이 높고 학업의지가 뛰어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관내 학생 가운데 효행심이 강하면서 소외계층 학생, 성적 우수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3명씩 선정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이번 장학생 선발은 각학교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 졌다.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유덕현 회장은 장학금 지급은 나눔과 사랑을 전달하는 소중한 일이라며 지역의 학생들이 더욱 훌륭한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했다.

<신재천 기자>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삼시다 대한민국!

이현구 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올해로 4회째 맞는 소상공인의 주간(10.30~11.5)을 기념해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삼시다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자리에서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이현구(네오픽스코리아 대표) 정책실장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병행하면서 사업에 열중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미라 기자>



SNS 아카데미

“관악구 소상공인 SNS로 내사업 날개달기”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는 지난 12월 6일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장에서 지역내 소상공인 20명을 대상으로 SNS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SNS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SNS 마케팅 전문가 장종희 강사를 초청해 '더 가치 있는 사진, 영상 촬영법' '동영상 만들기' '카페, 유튜브 활용하기' '카카오 채널 및 블로그 활용하기' 등 실전 강의를 통해서 SNS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각자의 사업에 적용 하도록 함으로써 'SNS로 내사업에 날개 달기'를 위하여 4주간 집중교육 했다.

개인 기업체 및 1인 창업기업,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광고의 어려움으로 최근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선호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시작된 '소상공인 SNS 아카데미'는 '웃는 소(笑)상공인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착안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슬로건은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가 설립때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작은 소(小)상공인이 웃는다"는 뜻으로 '웃을 소(笑)자를 사용해서 이번 SNS 아카데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초급부터 4단계 과정으로 구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수강을 마친 후에는, SNS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NS 아카데미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이현구(관악소상공인 연합회 정책실장, 네오픽스 코리아 대표)강사는 "소상공인 SNS 활용능력 강화교육을 통해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순정 기자>



소상공인 명품대학 수료식 개최

소상공인 연합회와 신용보증재단 공동주최 6주간 교육
서울시후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제고



서울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명품대학 수료식을 지난 11월12일 마포구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명품대학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소상공인 명품대학수료생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소상공인 명품대학 홍보영상 시청, 재단이사장·소상공인연합회장축사, 자치구별, 업종별 수료증 수여가 있었으며 이어서 교육우수자 시상이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이규업(잠순대 대표)씨가 최우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명품대학은 소상공인 연합회와 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소상공인 명품대학은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성동구에서 이론교육 200명, 실습교육 200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시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교육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업종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실습교육과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론교육은 ▲기업가 정신 ▲고객접점과 매출 위한 고객감동관리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VMD ▲소상공인 풍수지리▲소상공인팀빌딩 ▲소상공인SNS 구성되어 진행됐다.

소상공인 명품대학과정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향상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명품대학은 노하우를 쌓아온 명장전문가들이 생생한 교육현장교육이 가미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명품대학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혁신의지를 높이고 서울시와 서울신보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성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정 기자〉

‘소상공인 명품대학 1기 워크숍’



서울시 소상공인 명품대학 1기 워크숍이 11월 8일~9일 1박2일 동안 강원도 홍천 디발디파크에서 소명학 교육을 마친 150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상공인 명품대학 수강생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첫날 ▲SNS 마케팅교육 ▲성공소상공인 특강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소상공인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분임토의가 있었으며, 2일차에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방법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특별강의의 순으로 진행 되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유덕현(65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하나 되는 모습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면서 6주간의 시간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귀중한 시간 이었다”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활동에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 될 것 이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정 기자〉

2019 사랑나눔 걷기대회 성금 전달



기 성금을 함께 모아주신 회원 및 참석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시각장애인인 회원들이 함께 걸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도립천의 자연을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정책실장은 “본회는 7년 전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판로 지원 사업은 물론 해마다 장학금 전달과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단체를 소개하며 “그 연장선에서 오늘 행사는 ‘사랑 나눔’을 통해 단체의 설립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공헌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착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덕현)는 지난 7월 30일 사랑나눔 걷기대회에서 모아진 성금 일백만원에 대해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5곳에 각20만원 상당의 라면과 짜장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유덕현 회장, 하상대 수석부회장, 박종진 이사, 정용상 고문, 이현구 정책실장, 안종인 사무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의미있게 했다. 관악구 소재의 마마식당, 새술공부방, 난향지역아동센터, 조원지역아동센터, 청솔지역아동센터에 함께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유덕현 회장은 “정성어린 불우이웃 돕

<사랑의 정(情)육 나눔행사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6일 관악구청에서 관악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전하는 사랑의 정육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관악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 박종진이사장의 후원으로 정육 만명분이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불고기를 제공해드림으로써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정육 1,000kg 후원에 이어 올해도 돈육불고기 424박스, 총 1만인 분이라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약2,000만원 상당으로 관악구洞마다 설치되어 있는洞자원봉사캠프에서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찾동이 활동 및 안병캠페인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이 함께 펼쳐졌다.

관악소상공인축산협동조합은 지난해 관악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의 어린이 식당으로 잘 알려진 “행복한 마시당”에 정기적으로 고기를 후원하여 지역 아이들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현주 관악구자원봉사 센터장은 “지역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해 불고기를 후원해주시는 박종진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기업과 구청이 함께 더욱 따뜻한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지난 9월 24일 공포, 임대인-임차인 상생 협력상가 선제적 지원

관악구가 ‘서울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24일 자로 공포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흥대, 이태원등 젊은층이 몰리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악구도 최근 부상한 신흥 상권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우려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에는 -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 임대인, 임차인, 관련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및 상가 상생 협력위원회 운영 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 이번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점진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옥수 기자>



관악 신원상권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

관악 신원상권이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의조정위원회를 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3차)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일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개별 지원을 벗어나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8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구역을 조성 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관악신원 상권은 도림천, 신림역 등 상권이 가진 주요 자원을 활용해 생기 넘치는 도림천 축제, 순대타운 특화 프로그램, 서원동·신원동 릴레이 공연 등 도림천을 중심으로 두 상권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상권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자체 및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꾸는 아름다운 공간 '난곡 사거리 아리따움'

“아기피부나 꿀 피부는 모든 여성의 로망이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가 급 건조해지면서 피부 당김 증세가 보입니다. 피부건조 예방에는 세안이 제일 중요 합니다. 뜨거운 물 사용은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 결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로 모공을 열어 여러 번 헹구어주고 찬물로 마무리하면 피부를 탱탱하게 조여 줄 수 있습니다. 두 번 짜 피부미인 기본 습관으로 하루 8잔 충분히 물 마시기입니다. 또 세안 후 요플레나 요구르트를 발라 반질반질 마사지 해^^ 물로 헹구어 주면 끝,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촉촉해지며 건강해져요” 난곡 아리따움 김민옥 대표의 겨울철 피부 관리 꿀 팁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꾸는 아름다운 공간 아리따움 난곡 사거리점(난곡로 306번지)은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도탈 뷰티 브랜드샵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헤어, 뷰티 푸드, 네일, 향수 등 뷰티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 매장에서 10년째 “아리따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엔 아리따움 라이브점으로 새롭게 문을 열고, 해외 인기 메이크업브랜드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아리따움 난곡사거리점은 고객니즈에 맞추어 전문성 있는 카운셀링을 제공해 드리고, 다양한 피부타입에 따른 솔루션 제시는 물론 맞춤형 제품을 추천 해드리고, 얼굴형에 맞는 눈썹모양이나, 시즌 메이크업 트렌드를 공유하며,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악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봉사 하고 있는 김 대표는 관악에서 뷰티꿀팁 매장을 운영하면서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 이다.

<이정임 기자>



얼큰한 김치찌개 전문점 '우묵배미'

관악구 신원동에 위치한 우묵배미는 돼지볶음찌개 전문점으로 지역 내 두터운 단골 층을 형성한 맛집으로 유명하다. '우묵배미'란 움푹하게 생긴 '우묵'과 구획 진 논이라는 뜻의 '배미'가 합쳐진 단어로 옛날에 논에서 일하다 먹었던 얼큰한 찌개, 토속적이고 정감 있는 맛을 자아낸다. 우묵 배미의 배미는 논을 사투리로 표현한 것이고 우묵한 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난곡의 과거 지명이기도 하다.

신금순 사장은 15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우묵배미 식당을 살려보겠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를 지금에서야 보고 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음식 만드는 것에는 소질이 없던 신금순 사장은 98년도 IMF 때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외식창업 컨설턴트, 멘토 등을 하면서 실습장을 열어 식당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돼지 볶음찌개는 두툼한 비계, 쫄깃쫄깃한 앞전지살 돼지고기와 숙성된 김치가 어우러져 우묵배미만의 특별소스로 끓여 만든 음식이다. 18가지 재료가 첨가된 특제소스로 얼큰하면서도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을 내는 것이 비법이다.

우묵배미의 다양한 장점 중 하나는, 자체 개발한 육수를 주전자 채로 제공하여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육수를 부어가며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손님의 취향에 맞게 자작자작한 찜 형태로도 가능하고, 국물이 있는 전골로도 맛볼 수 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오픈주방등도 고객들의 호응도를 높인 요소이기도 하며 다양한 고객들을 위한 메뉴도 갖추고 있다. 돼지 낙지전골은 돼지 볶음에 싱싱한 낙지를 함께 넣어 만든 메뉴이며,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낙지와 김치만 들어간 김치 낙지전골도 우묵 배미만의 특별한 메뉴다.

<김정임 기자>



최상품만 고집하면서 자존심을 지켜가는 미림청과

삼성동에는 동네과일가게와 대형마트 외에도 9곳의 과일가게가 있다. 그 가운데 온화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최상품만 고집하면서 소상공인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미소천사 미림청과 김성호(44세)사장을 소개한다.

김사장은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의 권유로 과일가게를 시작하지 17년째다. 아침 9시 가게오픈 전에 카페와 영업점 20여곳의 배달로 하루 일과를 시작 한다는 김사장은 신선한 과일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매일 매일의 거래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미림청과에서는 국산과일과 수입산 과일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키위는 뉴질랜드(제스프리)산이 가장 맛있고 바나나는 필리핀산이 그중 맛있다고 한다. 수입과일에는 원산지표시가 있는데 작게 표시돼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고 한다.

미림청과 김사장은 상품의 진열을 고객의 눈에 띄게 물건위치를 색깔 별로 구분,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것이 판매노하우라고 한다. 과일 진열이 매출에 영향을 주기에 입구에 가장 낮은 가격의 과일을 배치하며 비슷한 색깔 나열은 금물이라한다. 그래야 손님들이 인식하고 머리에 확실히 남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정임 기자>



면역력 향상은 한삼인

농협홍삼 '한삼인' 신림점은 난곡 사거리 난곡 방향 우측에 위치한 정용상 신림점 대표는 2008년 점포 개업 후 11년째 성실 히 생산자(농민) 살리기와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취급 품목은 홍삼정프라임, 홍삼순액골드, 어린이를 위한 아이홍삼, 수험생을 위한 에이플러스업, 여성을 위한 백은 홍,홍삼절편, 녹용진액, 홍삼정스틱, 관절사랑, 발효홍삼, 홍삼차 등 120여 종류가 있다.

한삼인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국내 제일의 첨단 GMP 공장을 운영하고 간간한 검사를 거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

"한삼인"상표의 뜻은 '한' 대한민국, '삼'인삼 생산자, '인'품질 인정을 뜻하는 상표로서 대한민국 인삼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6년근 홍삼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말한다.

처음 버스 광고와 아파트 광고를 하였고 현재 인터넷과 SNS 광고를 하고 있다.

농협홍삼은 믿을 수 있는 지역 인삼조합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장 안전한 6년근 국내산 인삼을 사용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고객 만족을 하고 있다.

잘 못된 건강 상식을 올바르게 알고 구매하여 본인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다. 복용 후 건강이 좋아 졌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가 본인 마음이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관악 소상공인 연합회 이사로서 약 700만 전국 소상공인이 최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모두 힘을 합쳐야 더욱더 잘 살 수 있다 면서 관악 소상공인은 단합이 잘 되어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경제에도 서로의 도움으로 지탱해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한다.

정용상 대표는 박준희 구청장이 취임하는 날 관악 소상공인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 하기도 하고 2015년 12월 10일 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 했다.

농협 한삼인은 연간 평균 5회 정도 한삼인 할인 행사를 하니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하고 정직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식약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관악의 경제상권을 이룩하였으면 한다고 소망을 이야기 했다.

모바일웹: hansamin.alltheway.kr 주문 : 856.0389 (팔아요 홍삼 팔구) H.P:010.3204 .8556 <손광현 기자>



정직과 신뢰, 전문성을 두루 갖춘 '동화공인중개사행정사 사무소'



안종인대표는 2007년부터 관악구에서 거주 를 시작으로 2012년 부동산업에 입문하여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관악구 소상공 인연합회 사무국장, 관악구 자원봉사자 그리고 샐러던트까지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고있 는 활동가이다.

동화 공인중개사행정사 사무소는 공인중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행정사로서 행정관청 등에 제출할 서류작성 및 인허가 대행업무를 겸하고있다.

안대표의 사무소의 차별점은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등록되어 외국인과 다 문화 가정에게 원활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토착 주민간 원활한 소통 을 이어주는 부대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이 다. 또 관악구가 2019년 처음 실시한 만19~29 세 청년이 75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20~55%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청 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에 동참하여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정확

한 정보 제공과 함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또 안대표는 행정사로서행정심판,출입국관 련 대행업무,법인설립, 등록,인허가 관련 업 무로 지역주민의 행정서류업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는 겸업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수익창출 및 지역내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2016년부터 활동한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에서 사무국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안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교육 및 행사를 기획,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여의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연합회의 활동이 소상공인들 에대한 인식개선,홍보,정보공유,능력개발 등 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같은 관악구의 지원이 이루어져 관악구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독서를 좋아하며 작은도서관에서 월 3~4회 4시간씩 도서 대출,반납 자원봉사를 하는 안 종인 대표. 관악구의 지역주민으로,소상공인 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되는 바이다.

주소: 관악구 신림동 1513-7/원신길11, 3층

전화: 02-884-8579

팩스: 02-878-8565

E-mail: iiibe3@naver.com

<고성민 기자>

발가락 대통령의 장필식 대표의 '발건강 사업' 스토리



건강한 우리 몸을 위하여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할 만큼 중요하다. 발 건강을 위하여 발가락교정기와 기능성신발, 벨트, 세미안 비누까지 개발한 장필식 대표 는 이미 그명성이 자자하다. 관악경찰서 길 건너편 학성건설 4층에 있는 "(주)참 좋은 행복" 장필식(66세)대표의 사무실에는 기능성구두와 발가락교정기, 세미안 비누, 벨트가 진열되어 있고 각종 등록증과 허가증이 한 벽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다. 장대표의 고향은 전북 남원, 중학교를 남원서 나오고 고교는 광주에서 유학했으 며 칠남매중 장남이었다. 빈농으로 어린시절을 보낸 장대표는 돈이 없어 수업료 를 못내서 학기말 시험을 보는 중 시험지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그때 부터 신문배 달이나 아이스케기 장사 등을 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다.

오전 5시 이전에 기상하여 첫째 하는 일은 "살아있는 '나'에게 감사한다" 그다음 은 평생 비오면 비오는 대로, 해뜨면 해뜨는 대로 어려움을 참아주며 지금까지 살아와 준 아내에게 감사의 절을 한다. 다음엔 나를 있게해 준 모든 것들 에게도 감사드린다. 다음에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글을 쓰고 한폰에 일정을 정리 한다. '발은 제2의 심장' 이다. 발에는 내가 다 들어 있다. 발은 발가락을 펼쳐주고, 발가 락 교정기를 착용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씩 걸어 주면 내 건강은 스스로 좋아 진 다. 자연치유와 자가치료 능력이 있는 우리몸은 누가 고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치 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과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발가락 교정기와 벨트, 세미안비누, 기능성 신 발을 개발 했으니, 모두 다 발이 편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주)참 좋은 행복"을 소개 한다.

"(주)참좋은 행복"의 장필식 발가락대통령의 전화 : 010- 6252- 5812

<황금자 기자>

인터뷰

명품대학 1기 동기생은 든든한 동반자

간사 이 범 숙
소상공인 명품대 1기



소상공인 명품대학 1기 간사로 선출된 이범숙(58세, 행운동 원당공인중개사 대표)씨는 “소상공인 명품대 동기는 일회성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곳곳하게 남아서 위기를 헤쳐 나갈 것” 이라고 선출소감을 말했다.

관악구에서 18년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여행과 맛집 탐방 블로그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고 자랑한다.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공동 개발한 소상공인 명품대학 1기는 9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 되었는데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와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는 유덕현 회장을 비롯한 이현구 정책실장, 안종인 사무국장 등 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상공인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봉사로 나날이 발전되어 단합도 잘되고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다양하다고 자랑 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sns강좌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 한다고 바램을 물었더니 건의사항도 잊지 않았다.

소상공인 명품대학 1기 간사 이범숙씨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67명의 회원들의 열의가 뜨겁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향해 전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든든하다”고 말하고 “명품대학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혁신의지를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성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정임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사리 소통마당’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기타 음악축제

“신사리 소통 마당”이 지난 5월 24일 오후 6부터 서원동 삼모빌딩 1층 야외무대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 되었다.

‘한마음 통기타 음악캠프’(대표 이훈구)가 주최하고 삼모아트센터와 느림보 학교 봉사단, 공간재원 동아리,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관악마을방송, 지스토리가 후원한 이날 공연은 한마음 통기타 캠프에서 주축이 되어 총 9개 팀이 무대에 올라 추억을 되살리는 '7080 노래'를 골라 어쿠스틱

통기타의 맑은 음색으로 ‘님 에게, 그대 떠난 빈들에서, 불어라 바람아, 하얀 민들레’ 등을 노래하여 아름다운 초 여름밤을 수놓았다.

특히, 우리나라 톱 연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임창배교수의 톱 악기에대한 소개와 함께 ‘에델바이스’를 특별연주 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수영씨의 카바티나 공연, 팬플릿 앙상블, 색소폰연주 등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마음 통기타 음악캠프’는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관악구 생활 문화 예술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악구 보라매동과 삼모빌딩에 본부와 연습실을 두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통기타 공연과 자원봉사 공연 프로그램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통기타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마음 통기타 음악캠프’로 (010-4664-8150)하면 된다. <황금자 기자>

전국 최초로 ‘마마봉사단’ 모집 · 구성하여 ‘행복한 마마식당’ 운영

바쁜 엄마 대신, 마을 엄마가 만든 따뜻한 저녁밥상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삼성동에 있는 마을활력소 “행복나무”에서 전국최초로 주민 자원봉사를 매개로 한 ‘행복한 마마식당’을 시작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

행복한 마마식당은 “마을 엄마와 마을 아이들이 행복한 식당”이라는 뜻으로 맞벌이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놀이를 해주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매주 화요일 5시가 되면 마을 엄마들로 구성된 ‘마마봉사단’은 따뜻한 집 밥을 만들고, 아이들은

이웃 엄마들이 차려준 정성 가득한 집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웃 아이들과 보드게임도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자유놀이 시간을 갖는다.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 주는 재능기부 전문 자원봉사자와 함께 풍선아트, 켈라그라피 등 마마 놀이터 시간도 운영하여 풍선아트를 배워 경로잔치 때 실내를 꾸미기도 하고 켈라그라피를 배워 이름을 달아드리기도 배우는

가 하면 특히, 자원봉사에 참여한 서울대 학생들이 일대일로 학습지도도 해주고 있어 인기가 대단하다.

또한 매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참석해서 기초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돕는 “마마 상담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인기가 높다.

참여 신청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나 동 주민센터, 행복나무 인근 초등학교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자원봉사센터(☎02-879-5237)로 하면 된다.

〈신재천 기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삼성시장’ 신문



삼성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야기 발굴단(대표 박종진)은 11월 30일 오후 7시 동네배움터 (사)미루에서 심영아 마을자치센터장을 비롯한 이정임 편집장, 주민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신문 ‘삼성시장’ 창간식을 가졌다. 이번에 첫 발행된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1천부를 발행하여 지역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는데 삼성시장 소개를 비롯한 삼성시장 이야기, 모범업소탐방, 삼성시장 돌아보기, 기자수첩, 삼성시장 동정 등 지역내 전통시장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다.

〈김정임 기자〉



[관악구소상공인] 구독 신청 하세요

관악구소상공인 활동소식, 공지사항, 업소탐방 등을 담은 ‘관악구소상공인’의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관악구소상공인회 ▶ 구독신청
<http://cafe.naver.com/kbizgwanak>

'100인의 산타' 출정을 위한 기금 마련 하루 밥집



올해에도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100인의 산타' 출정을 위해 산타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밥집이 성황리에 운영 되었다.

관악구청 앞에 있는 '우리家 참순대'를 운영하는 이규엽(60세)대표는 20년 이상을 독거노인 가정방문과 보호자가 없는 환자 간병봉사, 장애인 외출도우미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악구 좋은이웃가게,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인 '우리家 참 순대'는 복지사각계층의 이웃에게 매년 2회씩 순대국 사랑 나눔 봉사부터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금년에도 주민연대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잘 알려진 '100인의 산타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밥집'을 지난 22일 주민연대와 함께 하루종일 운영하여 16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훈훈한 화제로 박수를 받고 있다.

1995년 창립된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관악주민연대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연대 사무국(02-875-31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미라 기자>

봉사단체

한마음 pop 손글씨 봉사단 발대식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한마음 pop 손글씨 봉사단'(총무 김남신)은 지난 7월 9일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마음 pop 손글씨 봉사단'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의 POP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연합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마음 POP 손글씨봉사단"으로 부른다.

지난 8월1일 신청업체의 접수를 받아 '묵은지 고등어 조림' 메뉴판을 제작하여 전달 하였으며 9월 27일 에도 접수를 받아 '꼬막 비빔밥' 홍보판을 제작 전달 하였다.

"한마음 POP 손글씨봉사단"은 앞으로 관악구 소상공인 회원 사업장과 업체에 도움이 필요한 경

우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접수 순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POP는 물감을 이용한 홍보용 손글씨로 봉사자들이 손수 제작 하는 것으로 실내 부착하여 최소 6개월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글씨위주의 문구를 코팅하여 사용가능 하다.

처음에는 pop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캘리그래피도 관련성이 깊어서 앞으로 배출되는 pop교육 및 캘리그래피교육 수요생들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한마음 POP 손글씨봉사단"의 신청접수는 010-8901-8579로 상호, 대표자이름, 연락처를 남겨 주면 된다.

<전옥수 기자>

칼럼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유치를 기원하며

이 현 구
관악구 소상공인회 정책실장



지난 10월 30일, 신원시장과 서원동 상점이 일대는 '상권 르네상스 평가위원회'들의 방문을 앞두고, 평가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정책실장인 나 역시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봄에 위원들을 기다렸다. 평가위원들의 방문을 1시간이나 앞두고

현장 실사를 위해 세워진 각 스팟에도 관악구 연합회 회원들과 신원시장 상인회 회원, 서원동 상점이 번영회 회원들이 홍보물과 현수막 앞에서 간만에 활기찬 표정으로 환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곳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는 중기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투입되는 총 80억원(5년간, 국비 40억 + 구비 40억)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후속 사업들을 유치해 말 그대로 지역상권이 다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발표는 지역상권활성화와 김은진 과장이 맡아서 진행했고,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전문 평가위원들은 준비된 자료집과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폈고, 즉석에서 질문하는 등 매우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후, 전원 이동하여 현장 방문 평가를 1시간 가량 진행 했고, 다시 실내로 복귀해 심사를 계속했으니, 총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것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관악구는 신림사거리 일대 임차 상인들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주들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며 설득해, '상권활성화'가 자칫 임대료 급상승을 유발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을 미연에 방지하는 상생협약을 이끌어냈고,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 주무부서의 행정적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건물주와 상인, 행정이 한마음으로 '별빛 신사리' 상권 조성에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물이 이날 심사를 받게된 것이다.

관악구 박준희 구청장은 스스로 '강감찬' 구청장, 즉 강한 경제, 감동 행정, 찬란한 문화가 있는 관악구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그 첫번째 강한 경제를 위해 혁신경제, 상생경제, 사회적경제, 청년경제를 4대 중심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바로 상생경제를 중심에 두고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부디, 다가오는 12월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의 르네상스 시대가 관악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끝>



'관악구소상공인'에 글을 보내주세요. 시, 수필, 편지글, 우리업소 자랑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채택되신 글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19길 89 (2층) 관악구소상공인회 사무국

e-mail wkenwjd11@hanmail.net

※ 다른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중복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게재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 조직도



회장
유덕현
명가김치 대표



부회장
정규철
정가한정식 대표



교육위원장
이백음
빅스바이트 대표



감사
양광석
양광석 법무사 사무실 대표



수석 부회장
하상대
한양건강원 대표



부회장
박종진
심진축산 대표



홍보 위원장
송규명
에드윈커뮤니케이션본부장



감사
김도환
김도환 변호사 사무실 대표



부회장
김민욱
아리따움 난곡사거리점 대표



정책실장
이현구
네오픽스코리아 대표



윤리위원장
박종진
심진축산대표



고문
장필식
참좋은행복 대표



부회장
김병환
닐리파스타 대표



사무국장
안종인
동화공인중개사 대표



상조위원장
김삼수
오케이 후불상조 대표

베푸는 마음, 나눔의 실천 후원계좌
새마을금고 : 9002-1692-0790-5
(사)관악구소상공인회

법률정보

쉽게 풀어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깨알 법률정보



안종인 행정사

인간이란 말은 한자로는 人間(사람 인 사이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고 그 관계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강약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 관계, 믿음에 관한 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 예로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얻기 위해 임대인과 약정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요?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계약이고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통하여 상호 간에 맺은 관계에 믿음을 주고받고 권리와 의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금전계약에서는 믿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추가로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설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잘 작성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한 분쟁들은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거나 소송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최선의 방법은 분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

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임차인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두로 즉 말로써 대답하는 경우, 두 번째 말로써 대답하며 녹음을 해두는 경우, 세 번째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발급받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세 번째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 이유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가 쉽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에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소송을 당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와 변론으로 판단하기에 자칫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예를 통하여 법률관계와 믿음, 분쟁의 예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2020년은 소상공인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기대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 동화 공인중개사행정사사무소 안종인 소장 >

수필

상인의 길



관악구 소상공인 연합회 수석부회장 하상대

상인은 장사꾼도 장사치도 아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국민저항의 첫 번째 계층이었다.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독립 운동가였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애국자였다. 역사에서 상인의 정신을 배운다. 상인은 상행위가 바로 길이다. 상도(道)와 상훈(魂)과 상경(經)의 자질과 덕목을 겸비하여야 한다. 상인의 행동양식과 경영사상이 곧 상인의 길이다. 요즘 상인은 무한경쟁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다. 지갑을 꼭 닫고 있다. 도처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저기서 무너져 가고 있다. 살아남으려고 사력을 다한다. 그러나 상인의 길은 단지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상행위의 저변에 인간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인의 길은 의리와 신의와 성실을 철학으로 한다. 절실함과 성실함은 상인의 원동력이다. 상인의 길은 인정이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인의 길은 곧 인간의 길이다. 상인의 길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스스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상인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내일에 희망을

더욱 드릴게요

신용은 좋지만 담보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가요?

오랫동안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및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담보 제공



서울시 자금

낮은 금리의 자금 지원
(이자 일부를 서울시에서 대신 납부)

관악지점 업무개시일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업무관할 : 관악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합지원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1(봉천동 874-4) 4층